

민속과 공연 사이

: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진오*

- I. 머리말
- II. 축제와 민속예술
 - 1. 민속축제의 탄생
 - 2. 민속과 민속예술
- III. 탐라문화제의 탄생과 변화과정
- IV. 민속예술경연의 실상
 - 1. 민속예술경연의 등장
 - 2. 민속놀이의 제작과 재현
- V. 민속예술경연의 문제점과 영향
 - 1. 민속예술경연의 문제점
 - 2. 민속예술경연이 참가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 VI. 민속예술경연의 개선 가능성
 - 1. 전면적 개선-민속예술경연의 마을축제화
 - 2. 부분적 개선-민속예술경연의 현장성 강화
- VII. 맺음말

국문요약

제주도의 대표적 축재인 탐라문화제는 1958년에 시작된 제주문화제에서 비롯되어 한라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역사를 자랑한다. 이렇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축제의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 민속예술경연이다.

이 글에서는 46회에 이르는 탐라문화제의 중심행사인 민속예술경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탐라문화제의 역사적 배경과 민속예술경연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탐라문화제의 탄생배경에 국가차원의 문화지배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의 구체적 방법이 민속예술경연임을 확인했다.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독재정권은 그들의 통치이념에 맞게 국민을 통치하기 위해 문화차원의 지배방식을 선택했다. 이 속에서 개인과 가족, 마을 등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전승되던 다양한 민속은 국가의 통치이념에 맞게 각종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 공식화된 민속으로 변질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같은 민속예술경연이 부정적인 역할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지배집단은 미약하지만 국가의 지배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가운데 지배적인 힘에 저항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그것은 탐라문화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주도민의 움직임에서도 나타난다. 시기에 따라 민생현안을 출품작에 담아내는 노력들이 그것이다.

이렇게 탐라문화제의 민속예술경연은 부정과 긍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 효과가 미약한 탓에 폐지론이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의 변화양상을 두루 살펴 전면적인 개선방안과 부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면적인 개선방안은 현행되는 민속예술경연을 마을축제로 전환시키는 방법이고, 부분적인 개선방안은 민속예술경연이 지니는 공연장 재현을 지양해 전승현장의 실태 파악과 전승활동을 중심에 두는 쪽으로 개선하자는 방법이다.

주제어 : 거짓 민속, 걸궁, 무형문화재, 민속놀이, 민속예술, 민속예술경연대회, 축제, 탐라문화제, 한국민속예술축제

I. 머리말

2007년까지 46회가 치러지며 제주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매김한 탐라

문화제는 성격과 내용 상 과거에는 향토문화제로 불리다가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서는 전통문화축제, 또는 지역문화축제 등으로 불리고 있다.

제주의 문화를 이어온 제주선인들의 정신적 자산과 삶의 문화를 축제의 테마로 삼아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의 중심에 탐라문화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탐라문화제가 100만 제주인 모두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제46회 탐라문화제도 어느 해보다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제주인들의 대화합 축제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¹⁾

지역의 전통과 민속이 축제의 장을 통해 발현된다는 탐라문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예산이 늘어나며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1958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지부의 ‘제주문화제’를 시작으로 ‘제주예술제’, ‘한라문화제’, ‘탐라문화제’로 거듭나면서 향토문화제, 또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축제의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 민속예술경연이다. 위의 2007년 대회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적 자산과 삶의 문화’를 담고 있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계승’의 실현방법이 민속예술경연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 덕분인지 오늘날 탐라문화제가 도민들에게 익숙한 문화의 일면이 되었듯이 민속예술경연은 탐라문화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행사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해를 거듭할수록 출전팀들이 열띤 자존심 경쟁을 벌이며 과열되는 양상으로 치달은 나머지 마치 스포츠경기 대회와 비슷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이미 생활의 현장에서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민속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1) 2007년 제46회 탐라문화제 종합팸플렛.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공연화되며 삶에서 분리되는 추세를 극복하기에는 힘겨운 실정이다.

이렇게 ‘삶의 문화’로서의 지위를 잃어가는 현상에 대해 ‘거짓민속의 경연장’, ‘민속문화 왜곡의 현장’이라며 민속예술경연의 폐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라져가는 민속을 알리고 보존하는 ‘민속문화 전승과 교육의 현장’이라며 옹호론을 펼치는 견해들이 해마다 탐라문화제를 즈음한 시기에 충돌하며 또 하나의 경연을 벌이고 있다.

민속이란 전승의 주체인 민중의 생활 속에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탐라문화제의 민속예술경연은 내용과 취지, 방식에 있어서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46회에 이르는 탐라문화제의 중심행사인 민속예술경연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탐라문화제와 민속예술경연의 탄생과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탐라문화제의 민속예술경연이 지니는 부정적인 한계와 긍정적인 가능성을 진단할 것이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민속학자와 전문예술인들의 개입으로 공연예술계의 창작패턴과 비슷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준비과정, 공연과정, 공연 후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²⁾

그리고 긍정적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민속예술경연의 운영과 심사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민속과 공연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민속예술경연을 개선해 주민축제

2) 필자 또한 90년대 중반부터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의 출전담을 연출·지도한 경험이 10여 년에 이르고 있어 준비과정에서 공연 후 과정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직접 개입했던 사례를 예로 들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II. 축제와 민속예술

1. 민속축제의 탄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탐라문화제는 전통문화축제, 또는 지역민속축제로 규정되고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 축제란 축(祝)과 제(祭)가 통합된 포괄적인 문화현상으로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종교적 제의라고 짧게 말할 수 있다.

축제가 일상의 전복을 통해 비일상성을 추구하는 것을 두고 프로이드는 일탈, 해방, 전도의 해방구로 파악했다면, 뒤르케임은 기존 사회질서의 옹호와 강화를 위한 사회의 재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일종의 종교적 형태로 보았다.³⁾

우리나라의 축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고대의 제천의식에서 기원을 찾는다. 범국가적인 제의인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동예의 무천(舞天), 신라의 연등회(蓮燈會)와 팔관회(八關會) 등 국가 중심의 국중대회(國中大會)가 있는가 하면 민중의 삶 속에는 마을 단위의 굿과 여러 가지 통과례가 존재해 제의로서의 축제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삶의 양식 전반이 급변해온 오늘날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고전적 의미의 축제에 대한 규정으로는 축제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행위를 포괄하기 어려워진다.

3) 진명숙, 『지역축제와 문화권력』, 전라문화연구소, 2004, 11쪽.

우리나라의 현대축제는 정부수립 이후 5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동안 국가정통성의 확립과 민족문화 창달을 주된 목표로 하는 각 지역의 민속축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탐라문화제 또한 이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다.

민속축제의 시작은 1958년 정부수립 10주년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부터 비롯되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민속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꿔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농악·놀이·민요·무용·민속놀이⁴⁾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연을 벌이는 초기의 방식이 민속일반·민속무용·민속음악·민속극⁵⁾으로만 바뀐 형태로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탄생을 전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향토문화제가 각 지방별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민속을 공공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펼쳐지던 각각의 향토문화제는 1966년 전라남도의 '1회 남도문화제'가 향토문화제에서는 최초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예선전 형식의 경연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화되며 최근에는 이북 5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⁶⁾

종합해보면 1950~80년대에 이르는 국가차원의 전통문화정책은 원형보존이라는 담론을 낳았다. 과거의 것만이 전통이고 사라진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으며, 원형복원 과정에서 민속예술이 삶의 현장과 분리되며 무대화된 예술, 정형화된 예술의 형태로

4) 2005년 한국민속예술축제 종합팸플릿.

5) 2007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2007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축제 백서』, 2007, 67쪽.

6) 신은희,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실태와 문제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17쪽.

규정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관변화된 축제가 연속되다가 88올림픽 이후에는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생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들어서 민속축제 또는 전통축제의 획일화현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축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민속축제는 다양한 축제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창조적 계승의 담론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와 민속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한다. 그러나 이미 관성화된 민속축제들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정부차원의 전통문화정책 또한 민중의 삶의 맥락에서 탈각된 것을 되살리는 근원적 개혁은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들이닥친 축제열풍은 기존의 민속축제의 오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축제의 양적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일회적인 이벤트성 축제를 양산하기에 이른다. 민속축제들 또한 주변축제들의 외양을 흉내 내며 이벤트성 축제로 변모하기 시작해 초기의 원형담론과 90년대의 계승담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방자치체 부활 이후에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축제를 양산해 2006년 감사원이 발표한 축제의 수가 1,178건⁷⁾을 넘어서고 있고 그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다. 제주도의 상황 또한 전국적인 축제열풍과 별반 다를 바 없다. 1990년 이전에 3건에 지나지 않던 축제가 90~99년 사이에 14건, 2000~2007년 사이에 63건으로 늘어났다.⁸⁾ 이같은 상황에서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의만을 축제로 볼 것인지, 종교성을 상실한 유

7) 김희승,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추진방안』, 『농촌사회』 16집2호, 2006, 265쪽.

8) 김동진, 『제주 특성화 및 특산물축제 소재 활성화 방안- 제주마, 감귤, 도새기 축제를 중심으로』, 『제주 대표축제 개발 및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1)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07, 69쪽.

회적이고 놀이적인 모습도 축제의 범주로 확대해석해야할 것인지 검토해야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문화제, 예술제, 각종 콘테스트,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의 문화행위 또한 넓은 의미의 축제로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늘어가는 추세다.⁹⁾

축제의 고전적 개념의 현실적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오늘날, 탐라문화제는 긍정과 부정의 문제를 동시에 지닌 채 민속축제라는 이름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2. 민속과 민속예술

민속은 민중의 습속으로 지난 시대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성을 지니고 끊임없이 창출되는 것이다. 민속을 과거의 유산으로 여기며 되살리고 지켜가야 할 오래된 전통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통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오래된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만들어진 전통’이며, 전통은 새로이 창출되는 것이다. 전통이란 단지 과거의 생산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며 새롭게 변환시키는 현대의 생산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의 교섭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전통의 일부분으로서 민속 또한 재창조되며, 새롭게 만들어진 민속은 그 나름의 의미와 기능을 한다.

김동욱 등은 민속을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민족의 생활양식¹⁰⁾

9) 윤병섭·윤복만, 『한·일간 축제의 현상에 관한 비교연구』, 『문화관광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2, 67쪽.

10) 김동욱 외, 『한국민속학』, 새문사, 1990, 17쪽.

이라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 역사가 짧은 미국 같은 나라의 민속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일천한 수준인가 라고 반문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민속의 현재성을 배제한 해석임과 동시에 ‘민족’의 것이라는 규정상의 문제를 지닌다. 민속은 민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계급계층 중에서 피지배계급에 해당하는 민중이 전승주체일 수밖에 없다.

손진태는 민속의 전승주체를 피지배계급인 민중으로 규정하고, 민중 일반의 경제적·사회적·종교적·예술적 생활의 모든 형태와 내용이 민속이라고 밝히고 있다.¹¹⁾ 그가 제시하는 생활의 형태 중 예술적인 성격을 지닌 부분을 떼어내어 부를 때 민속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을 주는 용어임에 틀림없다. 민중의 습속으로서의 민속과 인간의 미적 체험의 형상물인 예술을 독립적으로 살필 때는 큰 혼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 둘을 붙여놓았을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르는 말인지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진다.

민속예술이란 용어의 사용은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처음 개최할 때는 여러 민속 중에서 예술성이 있는 것들을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발전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출발한 것 같다. 그러나 대회가 진행되면서 그 대상에 있어 민속이면 모두 예술일 수 있다는 오류 속에서 ‘민속경연’인지, ‘민속예술경연’인지, ‘민속예술 공연경연’인지 등으로 표현될 만큼 민속예술의 성격이 모호해졌다.¹²⁾

이에 대해 김명자는 민간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온 예술로서 역사적 배경과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 선대로부터 전래하는 예술이라고 규정

11) 손진태, 『한국민족문화의 원류(1947)』, 『손진태선생전집』 2, 대학사, 1981, 23쪽.

12) 지춘상, 『민속예술경연대회의 개선방안-전국대회 토론회내용』, 『한국민속학』 21, 한국민속학회, 1988, 318쪽.

하는 강용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속극·민속음악·민속무용·민속미술·민속놀이·민속문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¹³⁾

이 글에서 다루는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에 포함되는 것은 주로 연희적 성격이 강한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연희적 측면에서의 민속은 ‘미분화된 예술’의 형태로 예술성을 갖는다. 여기서의 예술성이란 정교하고 세련된 형상화나 관념적 가치의 허구화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터득한 미적 체험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민속은 분화를 목표로 하는 미분화의 예술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총체화된 ‘통합적인 예술’¹⁴⁾이다.

민중의 관습적 풍속으로서의 민속은 삶과 밀착된 통합예술의 지위를 지니며 현재성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상은 지춘상의 지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연대회장의 공연물로 전락해 있어, 이미 버린 것을 지키라고 강요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사실상 민속과 공연 사이에 민중이 끼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Ⅲ. 탐라문화제의 탄생과 변화과정

탐라문화제의 시초는 1958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 제주도지부에서 주관한 제주도 최초의 제주문화제에서 찾을 수 있다. 문총은 해방공간에서 우익 문화예술인들이 결성한 단체로 공산당의 선전 활동에 대항하는 문화단체로서 활동을 전개했다. 1956년 결성된 문총

13) 김명자, 「민속예술의 존재성과 계승」, 『한국학논집』 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4, 299쪽.

14)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47쪽.

제주지부는 “문화인 전체의 권익옹호와 민족통일의 과업완수를 위한 반공문화전선을 형성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한다.¹⁵⁾”는 취지문을 통해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제1회 제주문화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학올림피아드, 동화대회, 시 낭독, 예술강연, 사진술강좌, 음악경연, 시화전, 영화상영 등의 예술행사와 민요시조창, 고전음악 등의 전통문화로 구성되었고, ‘북한동포 의거 축전 웅변대회’가 있어 눈길을 끈다.¹⁶⁾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한 제주문화제는 5.16쿠데타 이후 문총이 1962년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로 변신함에 따라 제주예술제로 바뀌며, 같은 해에 혁명 기념 1주년 행사로 치러진다.

제주예술제는 1965년, 4회에 이르러 한라문화제로 개칭되며, 기존의 예술중심의 행사에서 민속중심의 행사로 변신을 시작한다. 한라산에서 성화를 채화하고 행사의 서제(序祭)를 민요합창과 입춘굿놀이로 구성하는가 하면, 걸궁경연이 읍면대항시합으로 열려 최초의 경연방식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작된 걸궁경연은 주최 측이 의도한 성과를 얻는다. 5회 한라문화제 때에 걸궁경연에 7개 팀이 참가하고 관중 또한 5만 이상이 동원되었다고 하니,¹⁷⁾ 자발성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외형상은 성공적인 것으로 비쳐진다.

이 당시의 걸궁경연은 <산포조어>, <서시과차>, <용연야범>, <김녕사굴>, 화교팀의 <삼국지> 등 풍물을 이용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15) 김창민, 『문화의지배와 지배의 문화화-한라문화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7, 문화과학사, 1995, 91쪽.

16) 김창민, 위의 글, 93쪽.

17) 강창주, 『한라문화제 실행유감』, 『제주도』 28, 제주도, 1966, 100쪽.

창작적 성향이 강했다. 민속놀이인 <성주풀이>, <영감놀이>¹⁸⁾ 등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는 민속의 재현에 역점을 두었다. 이 같은 양상은 오늘날 탐라문화제에서 민속놀이경연이 창작적 성향을 띠고, 걸궁경연이 완결된 민속의 재현형태를 띠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는 초기에는 걸궁만이 경연종목이었음으로 출전하는 팀들 중 몇몇이 자신들의 차별화된 독창성을 연출하던 모습들이 전체적인 기류가 되어 관습화된 것으로 보인다.

탐라문화제를 연대별로 분류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 1960년대; 초기에는 학생과 기관, 예술인 중심의 예술행사 위주로 펼쳐지다가, 60년대 중반부터 한라문화제로 개칭되고 향토문화제로 성격이 바뀌어 민속이 강화된다. 이 시기에 최초로 걸궁경연이 도입되었다.
- 1970년대; 한라문화제로 정착되어 본격적인 향토문화제로 이루어지며 축제장이 제주시 위주에서 제주도 일원으로 확대된다. 이 시기에 각 시군 행정기관이 걸궁경연을 비롯한 민속놀이에서 과열된 경쟁의식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18) 김영화, 『새로운 방법의 모색을-제8회 한라문화제결산』, 『제주도』 42, 제주도, 1969, 80쪽.

19) 탐라문화제의 연대별 특징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해 정리했다.

제19~40회 한라문화제 종합팸플렛

제40~46회 탐라문화제 종합팸플렛

제민일보, 『한라문화제 올해부터 “탐라문화제”로』, 2002. 8. 13.

제주도, 『제주도 28호』, 1966.

제주도, 『제주도 41호』, 1969.

제주도, 『제주도 42호』, 1969.

제주도, 『제주도 75호』, 1979.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주예술 7집』, 1994.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주예술 12집』, 1999.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주예술 17집』, 2004.

- 1980년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 성화봉송 등의 행사와 연계하며 지역축제의 일면과 국가중심의 문화행사의 일면이 공존한다. 이 시기에 향토음식점 개설, 관광기념품 판매, 감귤축제, 바다축제 등 산업적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민속놀이 경연이 도입되며 한라문화제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예선전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외형상 국가주도의 문화정책에서 탈피해 지역문화축제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외국의 민속예술단 초청을 비롯한 국제교류를 시작하며 관광적 측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 2000년대; 2002년, 한라문화제라는 이름으로는 소개 발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보한 축제의 전형을 찾는 데도 문제가 있다며, 제주의 전통 문화제의 역사성과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탐라문화제로 개칭되어 전통문화축제를 표방함과 동시에 지역의 독자성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위와 같은 변화과정을 거치며 2002년 이후 탐라문화제로 개칭한 뒤로 현재까지 해에 따라 제주시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신산공원, 제주시 탐동광장 등으로 장소를 옮기며 치러지고 있다. 개칭한 이후 2007년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으므로 자세한 소개를 생략하고 2007년의 내용을 도표로 제시한다.

2007년 46회 탐라문화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27일까지 44개의 크고 작은 행사로 치러졌다. 이 중에서 본 행사는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치러졌는데, 그 면면을 연행예술행사와 각종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2007 탐라문화제 테마별 축제구성²⁰⁾

테마	일시	제목	장소	구성
기원대축제	10월 5일	기원대축제	삼성혈 삼성혈~탐동광장 사라봉 모충사	탐라문화제 서제 문화의 길 축제 만덕제
본행사	10월 5일	개막축제	제주시 해변공연장	개막식 개막축하공연
	10월 6~10일	전통문화축제	제주시 해변공연장 제주시 탐동광장	행정시 민속예술축제 학생민속예술축제
	10월 6~10일	무형문화재축제	제주시 해변공연장 제주시 탐동광장 천지연야외공연장 구좌읍 해녀박물관	도내외 중요무형문화재 및 지방문화제 시연 및 공연
	10월 1~6일	제주역사축제	구좌읍 해녀박물관 제주시 해변공연장 제주시 탐동광장	해녀축제 향토문화전시관 탐라문화제 역사전 생활문화 체험마당
	10월 5~10일	예술축제	주시 해변공연장 제주시 탐동광장 제주시 문예회관 천지연야외공연장 서귀포학생문화원 구좌읍 해녀박물관	공연예술축제 예술교류축제 전시예술축제 예술단 초청공연
참여행사	10월 7~8일	마을축제	성읍민속마을 덕수리 조각공원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덕수리 전통민속재현행사
	10월 6~19일	제주인 화합대축제	제주시 한라씨름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시 한라정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관	장애인축제 노인축제 공도대회 씨름대회
	10월 6~27일	참여예술행사	도내 일원	사진공모전을 비롯한 각종 백일장, 경창대회, 실기대회
	10월 7일	향토문화축제	제주시 해변공연장	농협한마당축제
닫는 마당	10월 10일	폐막공연	제주시 해변공연장	무용공연

20) 2007년 제46회 탐라문화제 종합팸플렛.

IV. 민속예술경연의 실상

1. 민속예술경연의 등장

탐라문화제 내에 민속예술경연의 등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5년 4회 한라문화제의 결궁경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의 결궁경연은 제주도내 읍면대항으로 펼쳐졌다. 이와는 별도로 시연의 방식으로 민속놀이가 진행되었는데, 1980년에 이르러 민속놀이 또한 경연방식으로 바뀌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예선전화 되기에 이른다.²¹⁾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반세기에 육박하는 기간 동안 많은 문화제가 발굴·보존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연방식이 지니는 과열된 경쟁심으로 인해 민속의 훼손과 오염 등 역기능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1999년 40회 제주대회에서부터 한국민속예술축제로 개칭하며 새로운 모색을 시도했으나 경연방식은 끝내 이어지고 있어 ‘경기장 민속’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탄생을 전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향토문화제가 각 지방별로 생겨나면서 국가주도의 정책적인 ‘공공화된 민속’²²⁾ 만들기가 이루어진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민속이 아니라 민속학자들이나 공무원들에 의해 ‘발굴’된 민속을 국가차원의 공식화된 맥락에서 ‘공연’되는 민속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민속놀이부문의 경연이 도입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탐라문화제의 민속예술경연은 결궁과 민속놀이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4개 시군이 경

21) 신은희, 앞의 글, 19쪽.

22) 김창민, 앞의 글, 100쪽.

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읍면 1개 팀, 동 1개 팀을 출전시키고 있어 기존의 4개 팀 대항전이 이어지고 있다.

결궁경연은 제주도 특유의 결궁을 단일종목으로 해서 각 시군 대표팀이 자기 지역의 결궁을 재현해 경연에 참가한다. 이 부문은 민속놀이부문이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예선전 성격을 띠는 것과는 달리, 탐라문화제에만 국한되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선발한다.

탐라문화제의 민속놀이부문은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민속놀이를 경기(競技)민속과 대동놀이 등으로 제한해 다른 부문과 구별하는 것과는 달리 결궁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민속을 연희화한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출품되었던 개별작품 중에는 사실상 연희라고 보기 어려운 민속에 무턱대고 ‘○○놀이’라고 이름을 붙여 참가한 작품들도 눈에 띈다.²³⁾ 이 밖에도 결궁부문이 민속놀이와의 차별성이 모호해 굳이 결궁을 분리하는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 때문에 근래에 이르러서는 결궁부문을 폐지해야하는 의견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 탐라문화제에 참가했던 작품들을 대상으로 민속놀이를 분류하면 무속제의에 바탕을 둔 굿놀이, 양편이 편싸움을 벌이는 경기(競技)민속 형태의 오락놀이, 관에서 치러지던 놀이를 재현하는 관변놀이, 의례와 노동 등과 더불어 불려지던 기능성을 지닌 민요를 소리판의 연희형태로 재현하는 소리판으로 나눌 수 있다.

23) 좌혜경, 『탐라문화제 전통문화 공연의 전승과 계발』, 『제주예술』 17,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2004, 35~39쪽.

〈표 IV-1〉탐라문화제에 등장한 각종 놀이²⁴⁾

참가단체	작품명
구좌읍 김녕리	불도맞이 굿놀이
구좌읍 김녕리, 행원리, 종달리, 하도리	해녀놀이
구좌읍 송당리	산신놀이
구좌읍 하도리	서천꽃놀이
구좌읍 행원리	남당중놀이
대정읍	툽질놀이
대정읍 하모리	연신맞이 굿놀이
서귀포시 동홍동	백중놀이
서귀포시 보목동	태우 만드는 놀이
애월읍 남읍리	포제놀이
제주시 건입동	요왕맞이 굿놀이
제주시 삼도동	흙싸움놀이, 입춘굿놀이
제주시 용담동	용담선유놀이, 정월대보름놀이
제주시 이도동	세경놀이, 영감놀이, 화반놀이
조천읍 신흥리	불싸움놀이
조천읍 조천리	연물놀이

이 부문 역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선발하는데, 최우수상을 차지한 팀은 이듬해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제주도 대표로 참가한다. 그러나 특정 시군이 상위 입상이 계속 되면서 향의가 빗발치자 수상과 상관없이 4개 시군이 순회하여 제주도대표로 출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해당 시군은 지역 내의 최우수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시켜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동 1개 팀, 읍면 1개 팀 참가라는 변칙적 방안으로 예년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과거

24) 좌혜경, 앞의 글, 37~39쪽을 참고해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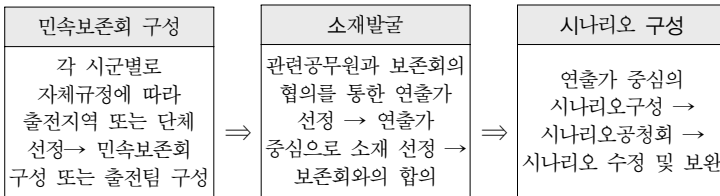
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2. 민속놀이의 제작과 재현

탐라문화제의 민속예술경연의 두 부문은 제작과 재현에 이르는 전 과정이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비교적 규모와 비중이 큰 민속놀이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전팀 구성과 시나리오 구성

〈그림 IV-1〉 민속예술경연의 준비과정



출전팀 구성에서 선정 및 구성, 소재 발굴, 연습 및 시연, 탐라문화제 참가까지의 과정은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출전팀 선정에 있어 우선 관내 마을의 자원(自願)을 받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 자청하는 마을이 많지 않다. 제주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상설 운영되는 각 동 민속보존회들 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했었다. 서귀포시는 국악협회 서귀포지부와 예총 서귀포지부가 중심이 되어 팀을 구성하거나 비교적 상설 운영력이 강한 강정동 민속보존회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했었다.²⁵⁾ 특별

25) 제주시의 경우 2002년 용담2동 민속보존회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상놀이로 참가하면서부터 19개동에 민속보존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탐라문화

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대체로 기존의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쓰던 관내 읍면별 순회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선정과정을 통해 탐라문화제에 출전하게 된 각 읍면동은 관할내의 마을회의를 거쳐 특정 마을을 선정하거나, 부녀회조직 등을 활용해 팀을 구성한다. 출전팀으로 선정된 마을의 주민반응은 냉소적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연습시기가 농번기와 겹칠 때가 많아 참여도가 매우 떨어진다. 결국에는 마을 내의 개발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조직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민속보존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민속보존회는 탐라문화제 출전을 위해 급조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해체되는 한시성을 띤다.

민속보존회가 결성되면 관련공무원은 보존회장(대개 해당 마을이나 해당 조직의 대표자가 맡는다.)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책정하고 소재 발굴작업에 들어간다. 탐라문화제 초기의 소재발굴은 주로 문화예술관련 공무원과 지역출신 명망가,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민속학자를 비롯한 전문연구자들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민속을 비롯한 예술분야의 전문연출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주민 스스로 소재를 발굴한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외부섭외 또는 내부에서 선임된 연출가는 단독으로 소재를 찾거나, 보존회와의 협의를 통해 소재를 선정한다. 전문연출가들은 대개 자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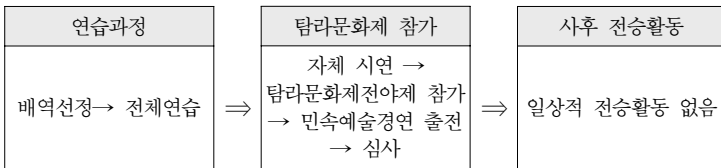
제에 참가하는 시군대표 마을은 민속보존회라는 이름으로 참가했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회출전을 위한 한시적 조직이었다. 제주시는 2003년에 민속보존회협의회를 조직해 19개동 민속보존회를 완비하고 협의체를 탄생시켰다. 이를 토대로 2003년 탐라문화제 제주시의 날 행사에 19개동 민속보존회가 전부 참여하는 시연행사가 열리게 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기존의 북제주군에 해당되었던 지역의 민속보존회가 포함되어 현재는 30개를 넘어서고 있다.

단독으로 소재선정에서 시나리오구성까지 마친 후 보존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취한다. 소재가 결정되면 곧바로 시나리오 구성에 들어간다.

2004년 북제주군 대표로 출전했던 하귀 2리의 <귀리(龜里) 걸보리 농사일소리>²⁶⁾의 경우 외부에서 섭외된 연출가가 소재발굴을 위해 1차 조사(자료조사)를 한 후 소재를 제안해 보존회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2차 조사(현지조사)를 마치고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존회임원 공청회를 통해 수정·보완했다. 이렇게 구성된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보존회 전체 공청회를 통해 확정되었다.

2) 연습과정과 탐라문화제 참가

<그림 IV-2> 민속예술경연의 공연과정과 공연 후 과정



지자체대표로 탐라문화제에 출전하는 마을민속보존회의 연습과정은 많게는 2개월에서 짧게는 1개월가량의 기간으로 이루어진다. 2004년 하귀 2리의 경우는 약 2개월가량의 연습을 진행하면서 연출자의 전일적인 통제 하에 <귀리(龜里) 걸보리 농사일소리>의 전 과정을 구성하고 습득했다.²⁷⁾ 이 과정에서 마을의 원로와 민속보존회의 임원, 소재와 관련

26) 이 작품은 필자가 직접 연출했던 작품이므로 제작의 전 과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사례로 선택했다.

27) 여기서 습득이란 소재와 관련한 예능적 능력이 전무한 출연진들의 교육을 의미하며, 예능 또는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은 제외된 형태로 진행된다.

한 예능을 보유한 사람들과 연출자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결정권은 연출자가 갖는다.

탐라문화제가 임박하면 출연팀은 마을 또는 해당 읍면의 행사를 빌리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연회를 가진 후 마지막으로 관람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보완해 탐라문화제에 참가한다.

탐라문화제에는 전체행사 전야제의 거리행진과 각 시별 축제의 날 행사에 참가한다. 시별 축제의 날에 민속예술경연이 이루어진다. 결국경연은 25분, 민속놀이는 35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 행하게 된다.

심사위원의 선임은 주관단체에서 임의로 하며, 위촉된 심사위원들은 전직 예총간부, 문인, 교사, 향토사학자, 민속학자,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등으로 구성되며 2년을 연이어 심사할 수 없다. 심사기준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매해 심사위원단이 내부적 기준을 새로이 마련한다.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 첫째, 원형의 보존, 둘째,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셋째, 소재의 참신성, 넷째, 관객의 호응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경연과 심사가 끝난 후 성적이 발표되면 민속 예술경연의 준비에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후의 전승활동은 주로 출전했던 민속보존회에 일임되는데, 일상적인 전승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귀 2리의 <귀리(龜里) 걸보리 농사일소리> 또한 2004년 탐라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아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이후의 전승활동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그나마 2006년부터 탐라문화제에서 시연(試演)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V. 민속예술경연의 문제점과 영향

1. 민속예술경연의 문제점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은 그것의 도입과 실행 이후 적잖은 문제를 야기하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민속예술경연이 전통문화의 원형보존과 발굴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민속예술의 가치와 그것의 전승에 대중적 관심의 지평을 마련한다는 순기능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먼저 원형보존과 발굴을 이루어낸다는 긍정적 평가는 탐라문화제를 비롯한 대개의 민속예술경연대회들이 만들어지던 초기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 등을 거치며 민속을 비롯한 전통문화의 기반이 와해된 상황에서 시행된 각종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자칫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처한 민속들을 되살려낼 수 있었다. 1955년에 문교부 내에 문화보존과가 생겨난 이후, 1961년 문화재관리국이 탄생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며 무형문화제 정책이 마련되어 유지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속예술의 전승과 더불어 그것의 대중적 지평을 열었다는 점 또한 순기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지방별로 향토문화제가 생겨나면서 각 고장 특유의 정서를 반영한 민속이 정비되며 다양한 형태로 선보일 수 있었고, 경연방식을 통해 경쟁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제5회 한라문화제에 7개의 걸구팀이 참가하고 관중 5만 여명이 운집했던 예를 보더라도 적어도 초기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는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순기능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역기능으로 전도되는 모습을 보인다.

원형보존과 발굴의 측면에서는 민속예술이 존재하는 기반의 정비에

는 소홀한 탓에 생활현장에서의 전승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연’ 일변도로 나아가며 무대화 또는 예능화되고 말았다. 또한 생활현장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가변성을 지니는 민속이 하나의 양식적 틀을 갖추는 고정성으로 굳어져 박제화되는 현상을 낳았다.

전승과 대중성의 문제에서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애초의 경연방식의 도입은 대중적 참여를 끌어내는 좋은 방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경쟁심으로 없는 것을 덧씌우거나 있는 것을 부풀리며 민속을 왜곡하는 현상을 낳고 말았다.

결국 순기능이 역기능을 낳게 되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다음으로 민속예술경연을 둘러싼 전체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당장 민속예술경연에 나타난 역기능의 문제를 살펴보면 경연방식의 문제, 심사제도와 심사기준의 문제, 민속의 획일화와 조작의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뒤의 두 가지는 처음의 경연방식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연방식 자체의 문제는 이렇다. 현장에 있어야 할 민속이 예술과 만나 운동장 또는 무대로 자리를 옮겨, 주어진 시간에 모든 것을 일대기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탄생한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받아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이미 민속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으로 봐야한다. 이것은 순전히 경연을 위한 민속의 전승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민속훈련’²⁸⁾일 뿐이며 그나마도 일회적으로 그치게 된다.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시도별 발굴민속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의 작품 발굴종목은 모두 46종목으로 전국 20개시도(이북4도 포함) 중 전국 1위

28) 임재해, 앞의 책, p.193.

이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종목은 <방앗돌 굴리는 노래(제주도 무형문화재 제9호)>와 <멸치 후리는 노래(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등 2종 목뿐으로, 전국 16위이다.²⁹⁾

둘째, 심사방식의 문제는 심사기준을 통해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원형보존’, ‘예술적 완성도’, ‘소재의 참신성’, ‘관객의 호응도’ 등의 심사기준 중에 누가 심사위원을 맡든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은 ‘원형의 보존’이다. 여기서의 원형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된 경연의 현장에서 심사위원들의 기호에 맞게, 공연공간의 특성에 맞게 각색된 민속을 놓고 원형을 저울질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을 대표해 나온 민속들이 세시에 맞춰 제 때에, 제 고장에서 유지·전승되는 가는 살피지 않고 원형보존을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대회용으로 급조된 경기장 민속을 원형으로 인정하는 불합리성을 지닌다.

원형보존의 문제와 함께 ‘소재의 참신성’ 또한 다분히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새롭게 발굴된 작품이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도 집계된 것처럼, 마르지 않은 우물처럼 끊임없이 민속예술작품이 발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열된 경쟁심은 이미 몇 세기가 지나 전승이 끊기고 원형자체의 파악이 불가능한 과거의 민속을 문헌사료에 근거해 재구성하게 하거나, 과거의 역사와 전설을 연극화한 작품들을 민속놀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등장하게 만든다. 전자의 경우는 <영등굿 악마회>, <조리회> 등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2005년 탐라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굴 구렁이 퇴치놀이>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민속의 획일화와 조작의 문제는 민속경연방식의 폐해를 가장

29) 제주일보, 「민속예술작품 발굴만 하면 뭐하나」 2004, 10, 4.

하귀2리의 <귀리(龜里) 길보리 농사일소리>가 2007년도에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 0-81호로 추가로 지정되었다.

심각하게 드러낸다. 이 역시 민속예술경연의 방식을 취한 데서 오는 문제로 각 시군과 출전마을에 있어서는 상위입상이 높은 애향심의 증명이며,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된다. 이렇다 보니 어느 해에 어 떤 팀이 펼친 ○○놀이가 인상적이었다면, 근거를 따지지 않고 그것을 흉내 낸다. 이를테면 제주도의 동부지역에서만 불리는 노동요가 다른 지역 놀이에 삽입되어 나오는 경우 등 진풍경이 펼쳐진다. 또한 입장→공연→퇴장이라는 경연방식에 기초한 무대공연식의 완결된 민속예술작품이 많아지면서 획일화되는 경향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와 아울러 대회출전과 상위입상을 위해 실제로 존재의 근거가 불충분한 민속이 창작되거나,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으로 조작된 민속예술작품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줄드래기>, <구룡곶 그물 코스>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 민속예술경연이 참가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민속예술경연은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고루 영향을 끼친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는 높은 성취감획득과 마을단합을 꾀할 수 있다. 민속예술경연에서 상위입상한 마을은 경합을 벌였던 다른 마을에 자기 마을을 견주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게 된다. 또한 상위입상이라는 제도적 성과가 단기간의 집중연습과정에서 쌓인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구실을 하기도 한다. 직접 참가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단결력 또한 강화되며 이것은 다시 마을행사 또는 관할 지자체의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민속예술경연의 상위입상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 우월감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며, 자체 행사시에 인원동원을

비슷한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는 데에도 수월하게 된다. 반대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마을로서는 상대적 좌절감으로 인해 관에 대한 불만과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단기간으로 그치며 상위입상을 위한 재출전의 동기가 생겨나 다시금 민속예술경연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관으로서서는 어떤 경우라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긍정성의 이면에 민속예술경연은 독재사회에서 경험했던 동원문화의 잔영이 자리 잡고 있다.

민속예술경연이 참가자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민속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공식화된 민속’에 스스로를 구속하게 되는 점이다.

대개의 참가자들은 민속예술경연에 참가하면서 자신이 출연했던 민속예술작품과 다른 팀의 작품을 접하며, 민속예술경연의 요건에 맞게 재현된 개별 민속들을 자신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일반과 동일시해 “민속이란 이런 것”이라며 민속일반으로 확대해석하는 경향을 낳는다. 자신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전통에 기인한 민속은 오히려 민속이 아니다. 완결된 형태로 예술작품화되고, 비일상적이며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어 놀이판을 펼치는 특별한 행위를 민속으로 이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참가자 스스로를 민속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게 하며 문화적으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민속예술경연은 직접 체험하는 참가자와 관람을 통해 간접 체험하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공식화된 민속’에 순응시킨다. 민속예술경연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들은 이미 참가자들의 일상과는 유리된 사라진 민속들이 대부분이다. ‘넉동배기’, ‘신구간’, ‘문전제’, ‘토신제’ 등은 아직까지 일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자동차와 관련한 ‘차(車)고사’ 등은 새롭게 맥락화된 민속이다. 그러나 걸궁을 비롯한 각종 세시풍속 등은 이미 사

라지고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과 유리된 민속들이 민속예술경연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의 문화지배방식이 자리해 있다. 앞서 살펴 본 탐라문화제와 한국민속예술축제의 탄생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민속을 민중의 일상과 분리시킴으로써 민중의 일상을 지배 하겠다는 문화지배방식의 일환인 것이다.

피지배계급인 민중의 삶의 방식인 민속은 그들의 현실인식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작게는 개인의 문제에서 크게는 공동체의 문제까지 현실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모순과 불평등한 억압의 상황에 대한 표출을 이를 통해 구체화하고 집단화한다. 국가는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민속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발굴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단하고 변형시켜 박제화한다. 민속예술경연은 민속의 공공화를 꾀하며 상위입상한 민속은 무형문화재 등으로 공식화된다. 결국 과거의 민속을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발굴하고 공식적인 맥락에서 공연함으로써, 민중의 삶에서 민속을 ‘탈맥락화’³⁰⁾한다. 이렇게 탐라문화제의 민속 예술경연은 왜곡된 민속으로서의 ‘공식화된 민속’의 장으로 과거 군사독재사회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VI. 민속예술경연의 개선 가능성

지금까지 탐라문화제의 민속예술경연의 실상을 통해 그것이 지니는 순기능과 역기능, 이면에 숨겨진 국가의 문화지배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찰에 따르면 애초에 탐라문화제의 민속예술경연은 과거 군사독재

30) 김창민, 앞의 글, 101쪽.

사회의 산물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임이 분명해졌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한국사회의 전 영역에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용한 방식이 아니기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의 개선방안은 전면적인 개선방안과 부분적인 개선방안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전면적 개선-민속예술경연의 마을축제화

전면적인 개선방안은 민속예술경연의 역기능을 중심에 두고 폐지하는 것이다. 민속예술경연의 폐지가 축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연의 방식을 폐지하고 민속예술경연을 마을축제로 전환하지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탐라문화제가 제주도 차원으로 중앙집중화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자생적 축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민속의 유지·전승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마을의 신앙, 생업, 환경과 관련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민속을 더욱 장려하고 주민 스스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구조를 생산하는 것이 탐라문화제가 지역의 전통문화축제로 탄탄한 기반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민속예술경연의 마을축제화로의 전환과 관련해 현재 제주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축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새롭게 만들어진 축제로서 마을의 특산물을 테마로 하거나 마을 특유의 경관이나 역사소재를 토대로 한 이벤트성 마을축제들이다. ‘도두 오래물, 수산물축제’, ‘함덕바당 모살축제’ 등이 대표적인 예로 상당수가 존재하며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축제들이 주민축제로 내면화되기보다 마을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일에 부심하고 있다.

둘째, <표 III-1>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탐라문화제와 연계한 마을민속 축제로 ‘정의골 민속한마당 축제’와 ‘덕수리 전통민속축제’가 있다. 이 축제들은 마을의 전통적인 생업민속과 연희민속 재현을 중심으로 행정권 내의 자연마을 간의 자체경연을 벌이는가 하면,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의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민속을 일상적으로 전수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운영하며 전승에도 집중하고 있다.

셋째, 제주도 특유의 마을 본향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통적인 당굿을 마을축제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도내 각 마을마다 사라진 포제(酬祭)를 복원하는 전통적인 마을제의들을 부활시키는 경향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마을제의들을 중심으로 마을축제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마을축제들을 탐라문화제와 연계시켜 지역의 민속예술 전승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읍리와 덕수리의 경우처럼 내면화된 주민축제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마을주민들이 현재적 요구를 수렴해 이벤트성 축제의 요소를 삽입하고, 나아가 전통적인 마을제의와 결합시키면 모범적인 틀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형태의 축제를 포괄하는 마을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래 탐라문화제가 지닌 가치 있는 민속예술의 발굴과 전승의 기능을 이어가는 측면에서는 실험민속학적 방법³¹⁾을 활용할 수 있다. 실험민속학적 방법이란 연행적인 요소를 생업의 현장과 동떨어지게 해 놓고 복원

31) 주장현, 『農民의 역사 두레』, 들녘, 2006, 339~345쪽.

또는 재현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작품 스타일의 민속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민속이 어떤 식으로 현재성을 띠며 변화하고 있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오늘날 새로이 환기시킬 가치가 분명하되 생명력을 잃은 민속이라면 지역주민과 연구자, 예술인들이 공동으로 추적해가며 되살려내는 것을 말한다.³²⁾ 기존의 민속예술경연에 얽혀있는 출연자인 지역주민, 연출가인 예술인, 심사자인 민속학자들의 소모적인 관계가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분적 개선-민속예술경연의 현장성 강화

부분적인 개선방안은 민속예술경연의 순기능을 중심에 두고 역기능을 제거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민속이 과연 경연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³³⁾ 하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지니는 순기능의 측면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순기능의 측면에는 민속예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연희민속에 국한된다. 앞서 살펴본 탐라문화제의 출품작 가운데는 <툽질놀이>, <테우 만드는 놀이>, <포제놀이> 등 도저히 민속예술의 범주에 포함할 없는 어색한 놀이들이 많다. 정확히 따진다면 이런 작품들은 민속예술의 상위범주인 민속문화에 해당된다. 경연대회방식이 낳은 역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속예술경연의 순기능에 주목한다면 역기능적 사례들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속예술경연이 예술적 가치에 집중하는

32) 주장현, 위의 책, 342~3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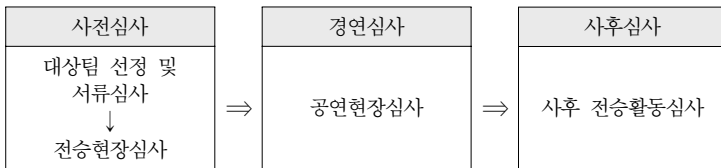
33) 이같은 문제와 관련해 임재혜는 『민속예술경연대회의 비판적 검토와 생산적 대안』, 『비교민속학』 13, 1996, 32~37쪽에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가치에 집중해 민속문화일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문화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민속예술경연을 계속 유지할 경우,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른다. 기존의 방식은 출전팀 선정→팀별 자체연습→경연장 심사로만 이루어졌다. 특히 심사의 경우 경연장에서 공연을 평가하는데 머물렀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25~30분 사이에 펼쳐지는 내용만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의미 또한 반감된다. 결국 민속이 펼쳐지는 현장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해당 민속 또한 공연화된 작품으로 변질된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심사→경연심사→사후심사의 방식을 제시한다.

〈그림 VI-1〉 민속예술경연방식의 개선안



사전심사는 경연대회 현장에서 재현되는 것만으로 순위를 매기지 말고 현장전승에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민속예술경연에 출전하는 팀이 지금까지의 지자체의 선정에 따라 임의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출전하는 팀은 시나리오, 구성원, 연출의도 등과 함께 전승계획서 등의 서류를 적어도 대회 1개월 전에 제출한다. 심사위원은 시나리오와 전승계획서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전승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시나

리오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승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은 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염두에 두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연심사는 대회 당일의 재현을 중심으로 현장의 상황을 얼마나 솔직히 보여주는가에 주목해 성적을 매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작품이 지니는 예술적 가치 또한 중요한 배점항목으로 채택해 예술성을 확보하게 한다. 물론 예술적 가치를 점수 매기는 기준은 출연자들의 기예적 완성도가 아니라 작품 전체가 지니는 종합연회적 완성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검토한 전승계획서에 근거해 공연의 진정성을 제고하고 현실적 전승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비중을 둔다.

마지막의 사후심사는 지속적인 전승여부를 진단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도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사후심사는 경연심사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전승현장을 방문해서 전승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서 세 차례의 심사과정을 마치면 수상작을 선정해 주관단체와 관할 지자체가 전승지원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VII. 맺음말

이상으로 탐라문화제의 민속예술경연에 대해 역사적 측면, 제작과 재현의 연행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탐라문화제는 국가차원의 향토문화제 육성과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민속의 공식화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분명해졌다. 말하자면 국가의 문화지배방식의 일환이었다는 셈이다.

민속의 공공화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

를 둘러싼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상호작용은 일방적이지만은 않다. 국가의 지배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가운데 지배적인 힘에 저항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만들어 가려는 시도는 미약하나마 존재한다. 이를테면 2006년 탐라문화제에 출전한 남원리와 판포리를 예로 들 수 있다. 남원리는 걸궁경연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FTA문제와 위미리 해군기지 설치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해냈다. 판포리의 경우는 탐라문화제 출전을 계기로 행정관청의 의지와는 별개로 주민들 스스로 민속보존회를 결성해 판포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공공화된 민속의 현장에서 주민 스스로 변화된 환경을 감지하는 하나의 적응방식이며 '새로운 전통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민속예술경연의 개선방안은 이런 가능성을 토대로 제시한 것이다.

두 가지의 개선방안 중에 바람직한 것은 전면적인 개선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 개선방안은 경연이라는 속성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는 없는 방안이다. 이에 비해 전면적 개선방안은 민속을 비롯한 전통문화가 지역주민의 일상에서 유지·전승되고, 그것이 다시 마을의 자생적 축제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민속이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이미 지난 시대의 유물이고 화석화된 전통의 재현은 민속의 현재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민중이 버릴 때 그 민속은 죽은 것이라는 금언이 떠오른다. 죽은 민속을 되살리는 것보다 현재 살아 숨 쉬며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민속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전승될 수 있는 축제와 민속의 장을 기대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1. 자료

2007년 제46회 탐라문화제 종합팸플렛.

2005년 한국민속예술축제 종합팸플렛.

2007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2007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14회 전국청
소년민속예술축제 백서』, 2007.

제민일보, 『한라문화제 올해부터 “탐라문화제”로』, 2002, 8, 13.

제주일보, 『민속예술작품 발굴만 하면 뭐하나』, 2004, 10, 4.

제주도, 『제주도 28호』, 1966.

제주도, 『제주도 41호』, 1969.

제주도, 『제주도 42호』, 1969.

제주도, 『제주도 75호』, 1979.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주예술 7집』, 1994.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주예술 12집』, 1999.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주예술 17집』, 2004.

2. 논문 및 도서

강창주, 『한라문화제 실행유감』, 『제주도』 28, 제주도, 1966.

김동욱 외, 『한국민속학』, 새문사, 1990.

김동전, 『제주 특성화 및 특산물축제 소재 활성화 방안- 제주마, 감귤, 도새기 축제를 중심으로』, 『제주 대표축제 개발 및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세미나(1)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07.

김명자, 『민속예술의 존재성과 계승』, 『한국학논집』 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4.

김영희, 『새로운 방법의 모색을-제8회 한라문화제결산』, 『제주도』 42, 제주도, 1969.

김창민, 『문화의지배와 지배의 문화화-한라문화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과학』 7, 문화과학사, 1995.

김희승,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추진방안』, 『농촌사회』 16집2호, 2006.

- 손진태, 『한국민족문화의 원류(1947)』, 『손진태선생전집』 2, 태학사, 1981.
- 신은희, 『민속예술경연대회의 실태와 문제점』,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윤병섭·윤복만, 『한·일간 축제의 현상에 관한 비교연구』, 『문화관광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문화관광학회, 2002.
-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 _____, 『민속예술경연대회의 비판적 검토와 생산적 대안』, 『비교민속학』 13, 1996.
- 주강현, 『農民의 역사 두레』, 들녘, 2006.
- 지춘상, 『민속예술경연대회의 개선방안-전국대회 토론내용』, 『한국민속학』 21, 한국민속학회, 1988.
- 진명숙, 『지역축제와 문화권력』, 전라문화연구소, 2004.
- 좌혜경, 『탐라문화제 전통문화 공연의 전승과 계발』, 『제주예술』 17,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2004.

Abstract

Between folk and performance : Problems with Folk Arts Contest
in Tamna Cultural Festival

Han, Jin-O*

Tamna Cultural Festival, the typical festival of Jeju-do, takes pride of Hanra Cultural Festival which has long maintained the history from Jeju Cultural Festival since 1958. On the course, Folk Arts Contest is standing in the main of Festival.

This article search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amna Cultural Festival and the actual circumstances of Folk Arts Contest to grasp the problem of Folk Arts Contest which is the main event of the 46th Tamna Cultural Festival.

The dictatorial government which had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had a choice of controlling culture to take care of people on their rules. In this situation, the various lore transmitted by the minority community- an individual and a family, a folk etc. - deteriorated the official lore from a variety of Folk Arts Contest adapting their rules.

This Folk Arts Contest doesn't take a negative role any the less. The subjects group was insignificantly against the rule power while the nation control penetrated into them over the transom, or has maintained their identity and tried to create. It can be found in the Jeju islanders' movements directly related in Tamna Cultural Festival.

*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The Folk Arts Contest of Tamna Cultural Festival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However, the abolition opinions represented by the in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ften rises up. This article indicates the whole and the part reform measure through all over searching positive effects and negative effects.

The whole reform measure is the way of converting the present Folk Arts Contest into Folk Festival, the part reform measure is realizing the transmission spot and centering in the transmission movements by supporting the reproduce performance with Folk Arts Contest.

Key Words

Fake lore, geolgu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Folk play, Folk Art, Folk Arts Contest, Festival, Tamna Cultural Festival, Korea Folk Arts Festival

교신 : 한진오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사학과
(한국학협동과정)

(E-mail : gutdoly@hanmail.net 전화 : 010-6692-6661)

최초 투고일 2007. 12. 28

최종 접수일 2008. 1. 25